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

:민주시민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주영순¹

《 요 약 》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오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참여 과정에서 민주시민의식 변화와 관련한 경험 사례를 살펴보고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한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요한 동력은 자발성과 주도성이었지만 이는 마을의 구성원들이 활동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더욱 발현되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공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적 지원, 청소년의 정책적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청소년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한 인격체로 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마을 기반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해 온 청소년들이 마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수렴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실천적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 마을 자체가 살아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구현되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 반성의 전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촉진자로서 지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제어 :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주도, 민주시민의식, 민주시민교육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주영순의 석사학위 논문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사례 연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1. 도안초등학교 교사, wndudek@korea.kr

I. 서론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 현상은 기존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멸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충북의 5개 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의 지자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젊은 여성층의 인구 비중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는 앞서 언급한 충북의 5개 군을 포함하여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젊은 층의 인구변화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정주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지역의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양육 조건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인구수 유지 또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급속히 발전된 과학기술의 성장은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이는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조윤정, 2018). 마을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마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이 녹아있어 소통과 배려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공간이다. 자신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아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대화와 토론, 때로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삶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와 마을까지 확장하고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조윤정, 김현주, 이권수, 2017).

충청북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면 마을을 품는다’는 비전 아래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16).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주체로서 자신의 주변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목표라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의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러한 전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구성원 간 신뢰를 형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통합하며 협력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등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를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민주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평행복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청소년 주도 활동이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선순환 체계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청소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민주시민의식

1.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의 청소년 참여 양상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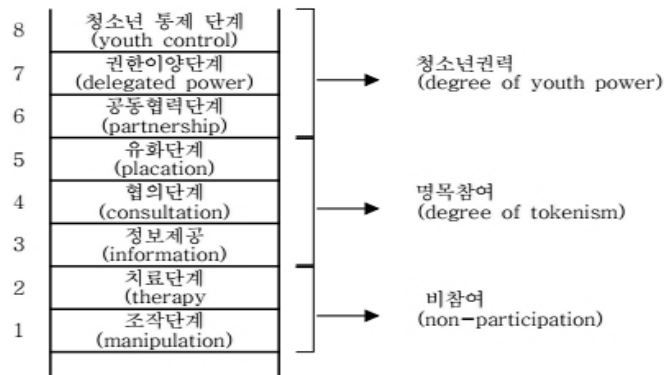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의 핵심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나의 삶과 관련한 지역 또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주인의식과 주체 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구성원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직접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홍제남(2019)은 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자치배움터로 몽실학교를 지목하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체험을 기획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길잡이 교사들은 안내자와 촉진자로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청소년들 스스로가 활동의 계획부터 진행, 평가의 전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와는 다른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 속에서 불필요한 경쟁 없이 좋아하는 주제로 나이와 무관하게 함께 협력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의적 능력들(책임감, 자신감, 리더십, 자기표현과 소통능력, 배려와 협력, 갈등해결, 비판적 사고, 도전 의식 등)이 길러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운정(2018)은 마을교육공동체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주체가 되는 것을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묻기만 하는 문화보다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때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서 청소년 주도라는 용어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최창욱, 전명기, 2013)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은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자 터전이므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이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Checkoway(1998)는 청소년 참여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청소년의 참여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를 ‘권한 이양’(7단계)과 ‘청소년 통제’(8단계)로 제시하고 청소년 참여자가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맡게 되거나 전체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어떤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지는 마을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발달단계나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정주 외 1999).



[그림 1]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Checkoway, B. 1998)

Checkoway의 청소년 참여 8단계는 가장 능동적인 참여 단계로 기존의 보호만 받던 수동적인 존재나 사회 문제를 그저 지켜보는 명목 참여 단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체성을 띠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권리를 갖는 단계를 말하며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동아리 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증평행복교육지구는 청소년카페와 같은 배움과 쉼 중심의 청소년 자치마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나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하고 정책 포럼이나 정책 마켓 등과 같은 청소년 정책제안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의 청소년 참여나 캠페인 등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청소년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주도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윤정, 2018).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을 학교로부터 지역사회 또는 마을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주민이나 마을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면서 마을을 학습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2. 청소년 참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시민(citizen)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폴리스(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을 의미했으나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시민은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귀족과 성직자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고 인간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사회, 시민 사회를 이룩한 사람들을 말한다(전숙자, 2005).

우리나라의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15)과 각론에서는 모든 교과와 기본 목표를 ‘민주시민 육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과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이란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하고 삶을 통해 민주적 가치들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며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발휘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식, 기능 가치들을 사회적 인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외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해 정리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통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남미은, 2009).

〈표 1〉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민주시민 덕목

구분	연구자	민주시민덕목
국외	Martorella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사회의 이념과 가치 참여, 역할과 책임 수행
	Dynneso	현 사회문제 인식, 학교나 지역사회에의 참여, 책임의 수용, 타인의 복지 고려, 도덕적·윤리적 행동, 사회 제반의 권위 인정, 비판적 사고 능력, 합리적 결정 능력, 정치에 대한 지식, 애국심

	Savage & Armstron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 비판 능력, 참여 능력
국내	조도근	인간 존중, 봉사과 협동, 자유와 책임, 준법 정신, 반성적 사고, 자치 생활에의 참여 능력
	한면희	사회 현상에의 관심, 탐구, 지식·기술·정보의 창출, 문제 해결
	한국교육개발원	인간 존엄성의 인식,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서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 출처: 남미은, 2009, pp.14, 16

신수연(2019)은 여전히 청소년들은 스스로 혹은 외부적 시선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시민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 참여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는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하였다.

윤성희(2018)는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탐구활동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학생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을 키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돌봄, 진로탐색,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배움을 일상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며 그 결과로 아이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을은 작은 사회이고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 등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삶이 살아 숨 쉬는 마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은 성장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 절차가 민주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천과 연계되어 있다면 마을이야말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을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는 적극 협력하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보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배움을 찾고 청소년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자발성, 협업, 연대, 창의성,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의 의견 수용, 존중과 배려, 권리와 책임, 다양성 인정, 갈등해결 능력 등 민주시민의식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민주시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관찰하고, 참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를 질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증평행복교육지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교육생태계 조성 사업, 교육공동체 사업, 지역 특화 사업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교육공동체 사업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마을 주민들이 풀뿌리 교육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연구회 활성화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모든 활동이 지역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이에 참여하는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증평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증평행복교육지구 교육공동체 사업의 세부 운영과제인 행복교육 동아리 운영 일환으로 조성된 ‘청소년 카페 물감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의 참여 양상 관찰과 면담을 통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증평행복교육지구 사업 개요

구분	운영과제	세부과제
교육생태계 조성사업	지역교육협의체 구축	- 증평행복교육지구 센터 운영 - 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교육공동체 사업	마을교육과정 활성화	-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 - 찾아가는 지역문화예술 수업 운영 - 진로프로그램 운영(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행복교육동아리 운영	- 청소년 카페 ‘물감’ 조성 및 운영 - 마을교육과정 지역연구회 운영 - 마을학교 축제
지역 특화 사업	지역 연계 돌봄	- 학부모참여 공동육아방식 돌봄교실운영 - 지역연계 자원 발굴 및 개발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 민관학 원탁토론회

청소년카페는 청소년 자치 문화 확산 및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한 마을공모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역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운영 지원하였다. 주된 활동은 안전한 돌봄과 휴식이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청소년 행사에 참여하거나 자발적인 카페

자치 운영 활동, 지역 사회 참여 활동을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은 카페 운영 규칙 정하기, 도시락 봉사 활동, 지역활동가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험활동, 카페 공간 꾸미기, 스스로 파티 기획하기, 민주시민체험, 마을학교 축제 부스 운영 및 행사 진행, 증평 행복교육지구 사례발표회 참여 등이 있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소년 카페 활동과 관련된 연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 및 대표 마을활동가들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은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참여 과정에서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고 느낀 것과 비공식적인 대화까지 포함하였다.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3차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1~2시간씩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대표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은 평소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및 다양한 증평행복교육지구 행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민주시민의식 변화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이나 변화의 모습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소년 카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청소년 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추후 청소년 주도 활동 관련 연구 및 자치 활동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면담 자료에서 이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70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도출하고 유사한 개념을 속성별로 연구문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분류하여 민주시민의식과 관련 있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민주시민의식 변화 요소를 21개의 하위 범주로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과 방해하는 요인을 6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4명의 청소년은 청소년 카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눈에 띄게 생활 모습이 변화하였고 참여 빈도수가 높아 청소년 카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많으며 모든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심층면담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또한 청소년카페에서의 참여 빈도수가 높아 연구자와의 레포형성이 잘 이루어져 편안한 분위기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마을활동가는 청소년카페를 전담하여 운영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 활동가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돌봄,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표 3〉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이름	소속	학년	청소년카페 주요 활동 내용
강○○	**중	1	
우○○	**중	2	
진○○	**중	2	청소년 카페 부위원장
이○○	**중	3	청소년 카페 위원장
정○○	마을활동가		청소년 카페 전담 운영

면담 질문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활동 참여 계기, 청소년 활동 내용 및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 청소년 활동을 통해 더 많이 알게 되거나 나 또는 내 주변 사람이 느낀 나의 변화 모습,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하여 변화가 일어난 모습,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관찰과 면담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이름은 연구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 및 면담 내용을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담, 참여 관찰, 관련 교육청 문서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의 다원화를 추구하였으며 면담이나 참여관찰 후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모든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는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 내용을 선별하였다.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및 이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참여 양상 관찰과 면담 결과를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양상 분석과 그에 따른 민주시민

의식 변화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분석을 통해서 는 개인적,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개념화하고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의식 변화의 시사점 도출을 위해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내용을 따로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민주시민 덕목별로 자료의 의미를 해체하고 개념화하였으며 개념화한 자료 및 범주들을 관련 있는 형태로 재조합 하여 다시 개념화 하였다. 개념과 범주의 명명작업은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민주시민덕목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단어나 어구에서 범주화하였다.

IV.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서 공간의 의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의미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공간은 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들과 만나는 구심점으로서 도구로 측정이 가능한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 청소년들의 필요한 요구를 채워주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추상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인간은 공간을 떠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인 교육 활동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박용숙, 2013).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상’이 이루어져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물리적인 공간에 모임으로써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시작되는 ‘작은 사회’를 만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없었기에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휴식과 자유로운 자치 활동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은 증평행복교육지구 교육 주체들이 공간을 남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부재에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마을활동가: 저는 증평군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간들이 지자체 소유다 보니 청소년들만을 위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괴산, 증평 지역의 경우 마을과 동네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등의 시설은

수백 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증평행복교육지구 청소년카페의 경우 지역의 한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을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조성할 수 있었다.

2.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 동력

가. 친밀감

마을은 어른들의 지식이 일방적으로 청소년에게 기계적으로 전달되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어른들과 청소년이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공간에서 어른들과 청소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그리고 적응에 있어 친밀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 저는 정** 선생님이 와보라고 권유해서 오게 되었죠. 그 선생님은 방과후 수업 때문에 친분이 있었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이제 여기 청소년 카페는 너희들이 마음껏 쓰는 카페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꾸밀 수 있는 곳?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꾸미면 팬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자: 청소년 카페에 와서 친구들과 처음엔 서먹했을 텐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친해지게 되었나요?

강○○: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진○○: 저는 두세 번 나오니까 친해지던데요? 그 친화력 좋은 이**오빠가 있어서

마을활동가나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관계자 등 마을의 구성원들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만일 친밀감 없이 단순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연구자: 청소년 카페에서 다양한 여러 어른들과 만날 때가 많아졌는데,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처음 보는 어른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 이제 여기가 발전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어른들이 감시자로 느껴지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인가요?

진○○: 네.

하나의 친밀한 관계는 긍정적인 또 다른 관계들로 확장되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에도 매우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나. 자발성과 주도성

청소년 공간은 늘 지시받고 해야 할 일들 사이에 쫓기는 아이들에게 그저 ‘쉼’을 제공하여 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면서 미래를 위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쉼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면 기관과 마을활동가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한 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적·물리적 지원을 해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도전 의식,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청소년 카페에서 공유한 가치는 ‘청소년 공간에서 청소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로 귀결되었다. 자신이 가져야 할 판단의 권리마저 어른들이 독점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공간이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자가 되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타인의 권리도 나의 권리처럼 존중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을활동가: 처음에는 카페가 쉼터인 게 목표였기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곳이 자유로운 공간이 되고 이것저것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자기들이 기획하여 운영하다 보니 자기들이 먼저 “선생님 우리도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V.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과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 변화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활동에 따라 분류한 개념 범주화 내용은 <표 4>과 같다.

〈표 4〉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양상 및 민주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개념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 습관이 줄어들음 · 핸드폰 사용 시간이 줄어들음 · 집에서만 보내던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됨 · 성격이 부정적이고 거칠었던 면이 순화됨 ·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함 · 집에서 성격과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음 	긍정적 생활 변화	개인적 측면의 변화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필수 봉사시간 이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 다양한 사회적 지식(역사, 예술, 문화, 어른들과의 대화 등)이 늘어남 	학교생활 능력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대외활동(다른 사람과의 만남, 행사 참여)으로 자신감이 생김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디에나 갈등은 있다는 생각을 함 · 다양한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게 됨 	다양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이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됨 ·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음 	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외국어, 과학 등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함 	자발성	사회적 측면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카페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방안을 고민함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이 밝아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낌 · 친구들의 기분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짐 	공감능력			민주 시민 의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같은 느낌이 강함 · 방과후엔 항상 붙어있음 · 학교생활 중 쉬는 시간에 서로 만나려고 찾아감 	친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 ·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들을 보게 됨 · 모르는 사람과 친해져서 좋음 	사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음 · 친구들끼리도 격려와 지지를 하게 됨 ·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 어른들이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좋음 	격려와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이 생기면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듦 ·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문제 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 의견도 허용적으로 받아들임 	수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끼리 규칙정하기를 할 때 뿌듯함을 느낌 ·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듦 	자율성			

개념	하위범주	범주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 미리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을 체험하는 기분이 들 · 지역 축제 사회를 볼 때 대본대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유연하게 잘 하게 됨			
· 혼자하면 재미도 나 혼자 느끼고 책임도 혼자 지는데 함께 하면 다함께 재미있고 즐거움을 느낌 · 혼자 할 때 예상된 결과보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는 것에서 재미를 느낌 ·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시야가 넓어짐	협력		
·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게 됨 · 대화할 때 소리를 지르기보다 완곡하게 돌려 말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뀜	타인 존중		
· 내가 할 일을 잘 해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	책임감		
· 평소엔 여과 없이 하던 나쁜 행동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참게 됨 · 상처가 되는 말은 생각해보고 하지 않게 됨	배려		
·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며 오히려 밝은 모습에 반성하게 됨 · 도시락 봉사 활동 등 여러 봉사활동에 재미를 느낌	봉사		
·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늘어남 · 다양한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점차 능숙해짐 · 친구들의 성향을 점차 잘 파악하게 됨 ·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소통이 잘 이루어짐	합리적 의사결정		
· 실수해도 비난을 받지 않고 공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짐 · 준비, 실행 과정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든든함을 느낌 · 주위의 어른을 간섭자가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게 됨	연대감		
· 웃음이 끊이질 않음 · 언젠가는 더 웃기고 언젠가는 덜 웃기고가 아니라 항상 너무 웃김 ·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음 · 하는 일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느낌	즐거움		
·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생김 · 맘껏 뛰어노는 것에서 해방감과 기쁨을 느낌	스트레스 해소		
· 극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함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움 · 어른들의 간섭이 없음	자유로움	촉진요 인	청소년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 참여의 촉진/ 방해 요인
· 학교에서의 공부가 재미없었는데 카페에 오면 재미있음 · 외모만보고 친구들이 싸늘하고 차갑다고 오해를 하였는데 카페에서는 그렇지 않음 · 말이 없고 친구들과 벽을 치고 생활하였지만 카페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 · 실패했을 때 비난받을까 두려움이 사라짐	해방감		
· 동 학년보다 선후배 간 다가서기 힘들 ·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있으면 눈치 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관계맺기 의	방해요 인	

개념	하위범주	범주	연구문제와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구성원에서 배제함 · 고등학생은 어색하고 무서운 느낌에 구성원에서 배제함 · 규칙의 정도를 결정하려는 의도였는데 아예 규칙에서 빼는 것에 어른들이 개입함(핸드폰 사용시간 조정 VS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하지 않은 구성원과 친해지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음 ·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 친구들을 웃기려고 노력함 · 기본적인 규칙 정할 때 다양한 의견의 중심점을 잡는 것이 어려움 	의견조율의 어려움		

1.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난 개인적 측면의 변화

가. 긍정적 생활로의 변화

아이들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던 욕설이 줄었으며 핸드폰을 보는 대신 친구들과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된 점, 부정적이고 거칠었던 면이 많이 순화되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에서 겪었던 경쟁적인 문화, 비교하는 문화, 친구끼리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상처 주는 말, 친구의 외모 등 인상만 보고 차갑게 대하는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 친밀감과 믿음을 형성한 긍정적 또래 문화,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자연스러운 배려심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단순히 카페에 왔다는 이유로 왜 욕이 줄어들었을까요?

진00: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고요.

나. 학교생활 능력 향상

연간 20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청소년카페 활동으로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을 통한 도시락 봉사나 지역 내 돌봄 기관에서 동생들을 위한 학습봉사활동, 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채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깨닫는 점도 많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식이 늘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역사, 예술, 문화 지식으로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다. 자신감

청소년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의 어른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학교와 달리 실패에 대한 부담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전에 해 보지 않았던 활동을 할 때도 두려움이 적다고 하였다.

라. 다양성 인정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사회 어디에나 갈등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갈등이 생기면 짜증을 내거나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다 보니 갈등의 끝은 늘 해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친구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좋은 관계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00: 사소하게 다투거나 하는 갈등은 놀다 보면 저절로 녹아요.

연구자: 관계가 좋으면 갈등이 있어도 잘 풀리나요?

이00: 네, 리본을 묶었을 때 한쪽만 당기면 잘 안 풀리고 양쪽을 잡아당겨야 잘 풀리는 것처럼 갈등을 저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해는 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서로 친하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죠.

마. 적극성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경험들이 누적되며 청소년들은 소극적이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 삶과 연관된 사건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양하고 폭넓은 상황에 놓이는 경험과 확장되는 마을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완수해가며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의 기쁨과 성취감을 알게 되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학교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겼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진00: 저는 민주체험학습으로 서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갔을 때 일제 강점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슴 아파했는데 우리도 베트남 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비슷한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어요.

연구자: 그럼 언젠가 청소년 카페를 떠나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며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어요?

우00: 네, 그리고 싶어요. 아마 청소년 카페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기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바. 자발성

청소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발성은 마을교육공동체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할 수 있다.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물론 마을에서 스스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며 외국어, 과학 등 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주변을 중심으로 좁은 시야에서 생각하던 범위를 넓혀 자신의 진로, 꿈을 계획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배움에 대한 요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마을활동가: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쉽던 게 목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일부러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이 내 주도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하고 싶다고 느껴졌나 봐요. 저는 이게 너무 아이들에게 고맙더라고요.

청소년들의 자발적 활동에 의존한 의미 있는 경험들이 누적이 된다면 이것이 자체의 고유한 동력으로 작용하여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원하여’ 필요한 것들을 학습해 나갈 것이다.

사. 주도성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자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마을의 한 주체로 스스로 참여하여 점차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주변의 어른들과 교육청, 지자체, 학교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며 협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한 해가 끝나가자 이 공간과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말하고 현재 처해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우00: 제가 바라는 점은 지금의 공간보다 더 넓은 우리만의 공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군청에 계신 분들 모시고 우리가 활동했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저희가 놀러 다닌 게 아니고 역사도 배우고 공부도 하러 다닌 게 있으니까 이런 좋은 곳을 좀 발전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진00: 청소년 카페에 오게 된 뒤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점은 현재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가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고 청소년 카페가 오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대학교에 가도 카페는 쪽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2.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측면의 변화

가. 공감능력, 친밀감, 사교성 향상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친밀하게 시간을 자주 보내다 보니 친구들의 기분이나 상태를 파악하기 쉬워졌고 이것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감춰왔던 자기 노출을 통한 깊은 관계를 맺으며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향상은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전과 달리 성격이 밝아지고 말수가 늘었으며 학교의 선생님이나 가정에서도 그 변화를 알 정도로 표정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말수가 많아져 집 밖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잘 이야기 하거나 잘 웃는 등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카페 활동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관계의 다양성 또한 타인을 향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양한 만남과 그들과 함께 한 많은 활동의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낮가림이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입견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따른 관례적인 판단보다는 그들이 참여하는 태도와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생활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 격려와 지지

긍정적 관계 형성에는 격려와 지지도 큰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공간에서만큼은 무엇을 해도 인정을 해주고 격려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였으며 그로 인해 친구들끼리도 매사 격려하고 지지해 주게 되었으며 어른들이 자신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매우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진00: 청소년 카페에서는 도와주는 선생님들을 자꾸 만나니까 왠지 이곳이 발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많은 어른들이 오면 왠지 감시자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요?

진00: 감시자라기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느껴졌어요.

격려와 지지를 받음으로써 자존감이 향상되고 이를 발판으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격려와 지지는 청소년들의 내면의 자아를 강하게 하여 자신도 남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힘으로 작용하였다.

다. 문제해결력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밀감을 형성한 믿을 수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도 늘 자잘한 선택 사항이나 의견 조율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한 결과 갈등이 생기면 잘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게 되었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는 다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알고 있는 지식,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융합하고 때로는 직감적으로 때로는 친구들과 연대하여 사고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키워졌다.

라. 수용성과 자율성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거부당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진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허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미래 역량을 무조건 강요하기보다는 그러한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활동이나 배우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카페를 운영한 초창기에 청소년들끼리 모여 규칙 정하기를 할 때 생각보다 재미있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동안 가정, 학교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수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단순히 주어진 것에 참여하게 하는 경험이 많았던 청소년 카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지보다는 지지와 조언을 받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하였다.

스스로 하는 것의 범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꼭 무엇을 배우지 않아도 되며, 꼭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그 쉼을 발판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청소년 카페는 그 시작부터 공간의 사용과 공간의 확장에 대한 고민, 활동 내용과 그 운영 모두 청소년 주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카페가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을 먼저 체험하는 곳이라는 기분이 들었으며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진 결정권자가 된 것 같아 좋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강요당하는 배움이 아니라 원하는 배움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이00: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밖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우00: 저는 민주적인 사회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는 큰 세상, 카페에서 이걸 먼저 체험해보는 것 같아요.

이00: 서로 부딪히고 비벼지면서 모난 부분이 맞물림을 찾아가는 거니까.

우00: 어른들은 ‘너희 사회 나가면 힘드니까 미리 학교생활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카페에서 보다 더 먼저 그런 민주적인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만큼은 저희가 어른인 것 같아요.

연구자: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된 것 같나요?

우00: 네.

아. 협력

청소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과정에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함께 노력하여 다 같이 문제 해결을 해냈을 때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과는 예상되지만 여럿이 협력하는 과정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오히려 기대가 되어 더욱 재미를 느낀다고 하였다. 프로젝트처럼 긴 호흡으로 문제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해결해야 하는 경우는 과정이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역량이 커지고 성장하며 시야가 넓어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00: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면 무조건 내 기준으로 정하지만 같이 정하다 보니까 내 의견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내 의견보다 더 좋은 경우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제 생각과 친구의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가 짚여나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짚여 나가는 부분도 있고 서로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00: 내가 늘 예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결과를 모르니 재미있고, 막상 결과도 좋았어요.

강00: 혼자 하면 막상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서로의 의견을 듣다보면 더 좋은 선택의 길이 많아져요.

자. 타인 존중과 책임감 향상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관계를 쌓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고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타인의 인정과 지지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자존감은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친밀감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스트레스가 해소됨은 물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경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타인 존중 현상은 갈등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게 되는 상황보다는 완곡하게 돌려 말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게 된 데는 ‘내가 들으면 상처 될 말은 나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한다.

또, 청소년들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맡은 일을 다 하게 되었고 혼자 책임이 아닌 모두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실행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과정에

서 나타나는 실수는 나만의 뜻이 아닌 모두의 잘못으로 함께 여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다.

카. 배려와 봉사 의식 향상

친밀감에서 파생된 배려심은 다른 친구가 실수를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배려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깊은 신뢰감을 쌓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한 도시락 봉사활동을 통해서 눈이 안 보이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웃으시며 배달된 도시락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주어진 나의 삶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00: 저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이제 봉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자원봉사, 지난번에 도시락 봉사를 했는데 이번 주는 선생님(마을활동가)이 뜻깊을 거래요. 봉사하는 곳에 가 보니 현관문이 열려있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니 저에게 손바닥을 바로 내 주시더라고요. 손바닥에 한 글자씩 써서 소통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어두웠을 텐데 해맑게 웃으셔서 되게 놀랐어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도 이렇게 밝으신데, 나는 이렇게 다 멀쩡한데, 나는 어둡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파. 합리적 의사결정과 연대감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는데 점차 능숙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긴 과정들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의 다른 의견도 인정하고 공감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자: 혼자 있을 때 해결 안 되던 게 여럿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해결된 경험이 있나요?

이00: 같이 규칙을 정할 때는 나 혼자이면 무조건 내 기준으로 정하지만 아이들과 다 함께 정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00: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하면 좋은 선택의 길이 더 많아져요.

사회의 축소판이자 민주주의 배움터인 청소년 카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의식을 내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청소년 카페 공동체는 내가 실수를 해도 비난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결과에 책임을 함께 지고 다 같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3.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의 촉진 요인

가.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서먹한 관계였지만 친화력 있는 구성원의 노력과 또래 간의 공감대로 인해 금세 친밀감 있는 관계로 변화했다. 비슷한 생활 방식과 생각을 가진 또래라는 관계 때문에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학교 후에 자연스럽게 모여 그냥 같이 무언가를 하는 활동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같이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항상 재미 있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들은 허물없이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어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된다고 하였다. 함께 하는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고민거리,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풀어놓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됨을 느낀다고 하였다.

나. 자유로움과 해방감

빨리 친밀감이 형성된 이유로는 극소수의 인원만으로 시작하게 된 공동체로 타인들의 시선들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른들의 간섭이 없는 공간이라는 믿음 때문에 카페에 오는 일이 무슨 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재미없고 그 이유로는 수업의 방식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획일적이며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시험 등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어떤 청소년은 자신은 공부의 흥미도 없을뿐더러 학교에서는 거의 말이 없고 친구와의 사이에 벽을 치고 생활하는 편인데 이로 인해 친구들이 싸늘하고 차갑다고 오해를

하여 거의 혼자 지내는 편인데 청소년 카페에서는 자신을 옴아매는 것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4. 청소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참여의 방해 요인

가. 관계 맺기의 어려움

청소년들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있으면 분위기가 금세 험악해지거나 편하게 있지 못하고 강한 성격의 구성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끌려지게 되고 이럴 경우 함께 그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편함을 느껴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으며 강한 성격이 아닌 보통의 구성원들도 처음에 만나 나름의 친근함을 가지기까지는 감정적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하였다.

나. 의견 조율의 어려움

청소년 마을 참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카페 이용 규칙을 정하는 사소한 일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의 중심점을 잡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우00: 기본 규칙 같은 걸 정할 때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 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00: 규칙도 그렇고 평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느끼지만 의견이 애는 A면 다른 애는 A1, 또 다른 애는 A2, A3, A4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 B나 C가 없고.

이00: 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중간이 딱 필요하잖아요? 그 중간점을 잡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청소년 카페에서 규칙도 많이 만들고 매사 의견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게 많다보니 ‘애들아, 이걸 하자, 저걸 하자.’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연구자: 익숙해졌다는 건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이 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건가요?

이00: 네, 어느 순간에 중간점을 잡는 게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고, 애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원하는 거면 한 이쪽에서 의견의 범위가 겹쳐지겠구

나.’ 하고 의견의 중심을 잡아서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VI. 결론 및 제언

연구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마을’에 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전 과정에서 마을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이자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삶의 배움터가 된다고 보고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청소년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때 민주시민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 현장에서 참여관찰,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4명), 마을교육공동체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연구물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청소년 주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유발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운영 형태에 따라 그 공간의 지속 가능성은 다 다르며 공간 지속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간 발굴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 등 협력이 가능한 부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친밀감은 마을활동 참여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거부감을 해소하게 해주었으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동력은 자발성과 주도성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른들이 개입이나 간섭 대신 말없이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데서 비롯되었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는 민주적인 기본 가치와 이념을 내면화 한 인격체로 성장하였고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주적 지식, 기능, 가치를 사회적 행동으로 연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청소년 참여 활동의 촉진 요인은 참여할 때의 즐거움, 스트레스 해소,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었고, 방해 요인은 관계 맺기와 의견 조율의 어려움이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의 촉진요인과 방해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는 마을의 공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지원, 유휴 공간 발굴, 관련 운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 지역의 어른들은 청소년 활동을 지지하고 마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주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위원회 형식의 집단 체제를 조직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기초로 한 운영을 통해 점차 권한을 키워 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때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는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에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따뜻한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이 마을을 위한 정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증평 지역은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이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마켓(가칭) 등의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더 이상 청소년은 미래의 민주시민으로의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이미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마을이 진정한 민주주의 배움터로 작동하려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계획부터 실천, 반성의 전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의 어른들은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내자와 촉진자로서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전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협력적인 수단을 통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원리를 실천해 나간다면 청소년들은 이를 생의 전 과정에 걸쳐 습득하며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1. 01. 19. ※ 논문 수정일: 2021. 02. 17 ※ 게재 확정일 : 2021. 2. 25.

〈참고문헌〉

- 괴산증평교육지원청(2019). **2019 괴산증평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 교육부(2015).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제2015-74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 김정주 외(1999).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운동 연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 남미은(2009). **고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숙(2013). **학교 실내 공간 디자인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수연(2019). **한국의 청소년 참여 시민교육 연구 : 참여를 위한 시민교육과 참여로써 시민교육**.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성희(2018).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경기도교육청 꿈의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숙자(2005). **학급내 친구 연결망과 민주시민성**. *시민교육연구*, 37(3), 205-229.
- 조운정, 김현주, 이권수(2017). **지역기반 미래학교 운영모델 탐색 : 여주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130, 127-130
- 조운정(2018). **청소년 주도 마을교육공동체 사례 연구 : 몽실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4), 199-227.
- 최창욱, 전명기(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청(2016). **충북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충청북도교육청(2017). **충북행복교육지구 추진 계획**.
- 충청북도교육청(2019).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2019).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한국고용정보원(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 홍제남(2019). **지역사회협력 청소년 자치패용터의 학습과 실천에 대한 의미 분석 : 학습자 배움중심교육과 학습권 실현 조건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Checkoway, B. (1998). Involving young people in neighborhoo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9/10), 765-795.

〈Abstract〉

Participation of Youth in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Change of Democratic Citizens' Consciousness

Ju, Yeongsun¹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at changes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bring to the youth's democratic citizenship consciousness and to draw implications thereof. Accordingly, the case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change in the process of youth participation were examined. Subsequently, the concept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were extracted and classified. The study's primar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pontaneity and initiative were the driving forc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is became more evident when the village members actively supported the activities. The results further revealed a space for youth to perform various activities was important. Furthermore, administrative support such a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vitalize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ensure youth policy activities was imperative. Second, the youth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ersonally internalized basic democratic values and ideologies. Socially, they became democratic citizens who cooperated with each other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with others and solved life problems. Consequently, youth-led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ctivities proved to be a virtuous cycle system that could achieve the goal of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give youth who have consistently carried out village-based project activities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village to collect opinions and make decisions as well as to provide a place for policy activities so as to ensure practical democratic citizens are fostered. Furthermore, for the village itself to be realized as a real living learning ground, for democracy, it is crucial for adults to offer their support as facilitators so that youth can lead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reflection of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rojects.

Keywords : village education community, youth-led, democratic citizens' consciousness

1. Teacher, Doan Elementary School, wndudek@korea.kr